

양적 성장을 넘어 새로운 미래가치지향적 도약으로!

## 고대의료원 질적 도약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



왼쪽부터)보건의료노조 나순자위원장, 노재옥지부장, 서울지역본부 최희선본부장

지난 20일, 보건의료노조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대토론회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했다.

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, 고려대학원 노동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를 맡았으며 정당 및 시민단체 등 47개 단체가 후원했다. 행사는 1부 축사 및 연대사 2부 지정발제 및 토론으로 약 3시간가량 이어졌으며 오후 5시 10분경 마쳤다.

노재옥 지부장, 미래가치지향적 고대의료원을 만들기 위해,

노사가 존중받는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

노재옥 지부장은 여는 말을 통해 토론회를 열게 된 배경, 고대의료원의 발전 속에 내적 성장 정체 문제점 및 앞으로의 미래가치지향적 질적 도약을 위한 모색이라는 점을 언급했다. 또한 '대토론회를 통해 노사를 뛰어넘어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더 큰 의료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'고 말했다. 이어 이번 토론회의 공동주최인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및 서울지역본부 최희선 본부장,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박지순 대학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.

정세균 前 국무총리,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서 축사 전해와,



정세균 前 국무총리 축사영상 송출 중

한편,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정세균 前 국무총리를 비롯해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익 본부장,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의원(성북구갑), 윤건영의원(구로구을), 고영인의원(단원구갑)이 축사를 보내왔으며, 전국대학노조 고려대학교 지부 김재년 지부장과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원 권미경 위원장이 영상으로 연대사를 보내왔다.

연대사에서 김재년 지부장은 "고려대라는 이름으로 묶인 각 단체들이 학교총장의 지휘 아래 있음에도 그 선출에 있어서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가 안타깝다. 고려대학교와 의료원의 질적 향상에 이 토론회가 많은 영향이 되었으면 좋겠다."고 말했다.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 및 지역 단체들이 응원 댓글을 남기는 등 새로운 풍경도 연출됐다. 또한 고려대학교 신문사에서도 취재를 오는 등 토론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.

좌장에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,

이문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

임준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이 발제 맡아.



2부는 좌장을 맡은 윤석준 보건대학원장의 진행으로 시작됐다.

첫 포문은 이문호 교수의 '고려대학교의료원 노사문화, 조직문화, 인력문제 개선방안 연구

결과」로 시작됐다. 이문호 교수는 2018년 고대의료원 노사문화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담당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의 연구위원이다. 이 교수는 각각의 주제에 따른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발제했으며 맺는말에서 경제학자 슈밥의 「위대한 리셋」을 빌어 ‘우리는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가장 하찮게 여겨왔다... 코로나 19의 영웅들, 즉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경제를 돌아가게 만든 간호사, 청소부, 배달기사노동자 등 돈을 못 버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.’, ‘**앞으로 공중보건이나 국가보안처럼 국민에 실제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아웃소싱하는 문제는 재고할 것.**’이란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.

두 번째 발제는 임준 교수의 「급변하는 의료환경과 고대의료원의 미래발전전략」이란 주제로 이어졌다.

임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의 역사적 전개와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공보건의료 개념 및 체계를 설명했고 고대의료원의 공공적 역할이 중진료권, 시도(권역), 국가적 수준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.



지정토론의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**정혜란 수석부지부장은 「고대의료원 노동 현장 실태」** 주제로 고대의료원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고 직원들이 직접 말하는 고대의료원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전달했다.

두 번째 토론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**박태주 선임연구위원**으로 이어졌으며 「**노사 파트너십은 사용자의 결단에서 비롯된다.**」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했다. 박태주 연구위원은 ‘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사가 보건의료노조라는 상급단체를 적극 활용 해야한다.’는 점을 강조했다.

세 번째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**김종진 선임연구위원**이 맡았다. 김종진 연구위원은 「**고대의료원의 노사관계 및 조직문화**

**활성화 과제**」란 주제를 가지고, 고대의료원이 중노위에서 합의한 연구용역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. 이어 각 주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‘반복되는 갈등, 저신뢰(low-road)에서 변화와 혁신의 고신뢰(high-road)로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.’고 말했다. 맺음말로 **국제노동기구의 ‘100주년 기념 보고서’에서 나온 미래의제 10가지 중 ‘노사대화’, ‘일과 삶의 균형’, ‘지속 가능한 일자리 투자 확대’** 등의 개선안을 내놓으며 마무리했다.

다음 주자로 **이경훈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 회장**이 「**고대의료원에 대한 특별한 감정**」이란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. 이경훈 회장은 교우의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대의료원을 대하는 입장을 대변했다. 또한 ‘고대 호랑이의 귀소본능’이란 표현을 담아 고대의료원에 대한 애정에 비하여 의료원이 많은 교우 및 소비자 대상의 서비스질에 대한 개선지점을 제안했다.

마지막 토론주자는 **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위원**으로 「**고대의료원의 새로운 질적 도약과 조직문화,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**」란 주제로 앞선 발제와 토론내용을 종합했다. 이주호 연구위원장은 ‘노사 워크숍을 통한 연구용역 결과에 기



초한 해법 모색, 노동조합 인정을 통한 노사관계 개선, 간호직 이직률 및 비정규직등의 인력문제의 심각성’에 대해 인지해야 함을 제안했다. 또한 ‘**노사관계에 있어서 협력과 참여에 대해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.**’며 토론회를 통해 명실상부한 big 5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. 종합토론까지 마친 뒤, **좌장인 윤석준 교수는 “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대의료원에 대한 애정이 많은 분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. 또한 그 애정이 노사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.”**는 소감을 밝혔다.

마이크를 이어 받아 노재옥 지부장은 참석자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노동조합이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대토론회를 성료했다.